

연초부터 중견 건설업체 채용시장 활짝

우수 인재 선점위해 대기업 상반기 공채시점 보다 2개월 앞서

중견 건설사들이 이달부터 신입·경력 채용을 시작했다.

건설 취업정보 사이트인 건설위커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인 계통건설산업, 대광건설, 대방건설, 범양공조산업, 아이에스동서, 우미건설, 일성건설, 종합전기, 중흥종합건설, 포스코A&C 등이 15일에서 25일까지 각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상반기 공채 시점보다 2개월 먼저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에 나선 것이다.

계통건설의 모집분야는 기술(설비, 전기), 관리(안전) 등으로 2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www.krcon.co.kr)에서 온라인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우미건설도 건축·전기·설비·경영지

원(신입)과 경영기획·개발사업·마케팅·상업시설·건축영업·건축시공(경력) 부문을 25일까지 홈페이지(www.woomi.co.kr)를 통해 모집한다.

대방건설(www.dbcons.co.kr)은 건축·공무·예산관리·토목·조경·외부특화·전기·설비·CS팀·설계·경영지원실·비서실·총무부서장·총무·인사·재경부서장·회계팀·자금팀·안전·공공택지·민간사업 부문을 18일까지, 중흥종합건설(www.jungheungcon.

co.kr)은 건축·토목·기계·전기·안전·개발사업부 부문을 16일까지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위커 홈페이지(www.worker.co.kr)를 참고하면 된다.

건설위커 관계자는 "3월 대기업 공채를 기다리기보다는 1~2월 알짜 중견 건설사 채용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취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올 일자리·SOC 재정 91조 조기 집행

상반기 중 투입 경제 회복 기대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91조5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방 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해 올 상반기 중 시·도 연간 재정의 58%, 시·군·구 및 산하 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인 총 91조5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집행규모(82조6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는 당해 연도 예산을 다음해 1~2월 집행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당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해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해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업자 능력개발 등 일자리 창출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 △각종 도로공사 등 SOC 국

고보조 사업을 집중 관리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재정 집행의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층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복지재단에서 지방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